

특집
논문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 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

1964~1973년 『선데이서울』, 『여원』을 중심으로

이진선 _성공회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전 파병을 지속 가능하게 했던 이데올로기 장치인 미디어의 베트남 전쟁 재현 양상을 분석하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한국 사회의 허실을 파헤치려고 한다. 특히, 『선데이서울』과 『여원』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는 당시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대중잡지로 그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두 잡지를 통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적인 구도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1960~1970년대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 군사주의, 개발주의, 반공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동원하였고, 그 속에서 여성은 위치 지어졌다. 미디어는 한국 여성의 ‘모성애’, ‘현모양처’ 등의 담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어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였고, 병사들의 위로 및 사기 충전의 중요한 표식으로 위문편지와 위문 공연을 재현하였다.

베트남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젠더’와 ‘인종’적 시각이 결합되어 나타났고,

* 이 논문은 2017년 2월 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 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폭 요약 및 수정한 글임.

DOI: <http://dx.doi.org/10.31008/MV.38.2>

그래서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순수한 남베트남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미지가 양가적으로 혼종되어 드러났다. ‘악=베트남, 정의=한국군’이라는 구도 속에서 ‘베트남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 베트남 여성이 동원되거나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군의 ‘치어리더’로서 표상되기도 하였다.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과의 로맨스, 결혼 이야기도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베트남 여성의 ‘구원자’, ‘보호자’로서의 한국군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미군으로부터 베트남인과 구분되는 계급 상승의 욕망, 아시아에서 우위에 서려는 ‘오리엔탈리즘’적 한국의 욕망은 베트남과 베트남 여성을 ‘우리 안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드러났다.

■ 주요어: 베트남 전쟁, 젠더, 선데이서울, 여원, 이데올로기

1. 서론

상기(remembering)란 내적 성찰이나 회고처럼 평온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라는 시대에 아로새겨진 정신적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다시 일깨워(re-membering) 구축한다고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리라. _ 호미 바바(도미야마 이치로 2002, 131 재인용)

한국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수많은 민간인 학살,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며 폭력의 장(場)을 ‘상기(remembering)’해야 하지만, 그것을 잊은, 잊을 수밖에 없는, 또는 망각한 여러 세대와 젠더, 계급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과거는 다시 구축(re-membering)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과거와 ‘연루’되어 있지만(스즈키 2006) 보고 듣고 싶은 역사만 선택하여 기억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의 기억은 여러 층위로 나뉜다.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명의 군인을 베트남에 파병하였고, 이 가운데 5,000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는 1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밖에 전쟁 트라우마까지 포함한다면 베트남 전쟁의 상흔은 매우 진하다. 베트남 전쟁의 이면을 밝히려는 진상규명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한·베트남 공식 수교와 1999년 『한겨레21』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터이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이 대략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세워진 ‘증오비’가 50~60개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증가될수록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기억 투쟁’은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베트남과 비슷하게 식민지배 역사와 분단, 전쟁의 상흔과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망각된 기억’과 ‘우리’ 안의 ‘이중성’이 잔재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시대’라는 이름하에 문화 등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베트남을 경제·문화·관광의 시장으로만 바라볼 뿐 과거의 역사적 책임은 회피한 채 역사를 소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파병을 지속 가능하게 작동했던 이데올로기 장치인 미디어, 그중 1차 자료인 잡지 『선데이서울』과 『여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허실을 파헤치려고 한다. 특히, ‘여성’을 어떻게 위치 지었는지를 분석하여 베트남 전쟁의 ‘젠더 이데올로기’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두 잡지는 1960~1970년대 대중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젠더 질서의 재생산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미디어였다.

일차적으로는 『선데이서울』과 『여원』 기사에서 드러나는 베트남 전쟁 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로 드러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텍스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잡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진이 선택되어 편집되었는지, 그 사진의 캡션 내용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

기간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첫 해인 1964년부터 파병 철수 해인 1973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미 파병 전인 1961년부터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쟁 담론이 형성되었지만,¹⁾

1) 베트남 참전 시기 한국의 보도 또한 그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전쟁 시기의 『선데이서울』과 『여원』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김우성(2006)을 참고할 것.

과병이 이루어졌던 약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사 등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를 본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는 언론·문화를 핵심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선데이서울과 여원의 특징

현재 잡지 매체는 산업화의 발달과 매체의 성격의 변화로 그 위력이 저하되었지만 당시에는 영향력이 상당했다. TV가 1970년대가 되어서야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잡지를 통해 지식과 교양의 획득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의 일상을 장악했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문화는 주지하다시피 통제의 중심이었다. 박정희는 문화를 권력의 시너처럼 다뤘고, 정치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해나갔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검열 방침을 그대로 계승한 미군정기 시대의 검열의 기초들을 그대로 계승하며(강현 2016, 169) ‘검열의 제국’을 만들어냈다. 잡지 또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창간되고, 폐간되는 것이 당시의 ‘운명’이었다. 미디어는 ‘사실의 전달’이라는 신화 속에서 베트남 전쟁을 은폐하였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디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했다(이진경 외 2007, 93). 이렇게 문화 통제 및 검열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잡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이데올로기=미디어(잡지)를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

『선데이서울』과 『여원』은 1960~197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잡지였다. 『선데이서울』은 창간호 “6만 부가 발간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는 등(연윤희 2013) 주간지들의 각축장 속에서 ‘우리나라 잡지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대표적 대중잡지’로 기억되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철두철미하게 오락성에 초점을 맞췄고, 기사 내용과 구성, 소재의 화끈함, 선정성이 높아 ‘한국의 『플레이보이』’라고도 불렸다(이성욱 2004, 86). 그래서 『선데이서울』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만화경이자 현재의 하위문화의 기원으로 지목된다. 『선데이서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대중적인 잡지였다면, 『여원』은 여성지 중 단연 당대 최고의 잡지였다. 원래 『여원』은 도시 중산층이라는 한정된 계급을 주 독자층으로 산정하여 편집된 잡지였지만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맞물려 서서히 이윤추구 동기가 지배하는 상업적 체제로 정착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과 교양을 추구하는 계몽지로 출발한 여성지는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여성의 역할 증대와 다양한 정보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지로서 새롭게 변신하였다(송유재 1985).

두 잡지의 성격은 상이하지만, 대중성을 띄려고 노력했다는 점, 주요 필진들이 남성들이었다는 점, 젠더 담론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의 국가 정책에 호응하는 현모양처를 훈육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따르고 있다.

『선데이서울』의 창간이 1968년 9월 22일이고 『여원』의 폐간이 1970년 4월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파병 시기인 1964년부터 1973

년까지를 시기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다만 〈표 1〉²⁾에서 알 수 있듯이 『선데이서울』이 『여원』보다는 제목이 다소 과장적이고, 이목을 끌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여원』의 제목은 평이하다. 『선데이서울』은 ‘월남 최초의 한국인 스님’, ‘위문공연하는 조애희 기적적으로 살아나’, ‘월남 전선서 진중 작품전을 마련한 화가 병사들’ 등 주로 ‘화제’가 되는 사건들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선데이서울』다운’ 제목 편집이 눈에 띄기도 한다. 『여원』은 월간지의 특징상 특과원보고 등을 통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1966년 5월부터는 ‘베트남 통신’이라는 고정 기사를 배치하여 약 2년간 매월 파병된 한국 장병들의 수기를 전달하고 있어 전장의 일상성이 잘 드러난다. 베트남 파병 시 대부분의 기사가 그랬듯, 『선데이서울』과 『여원』도 주로 베트남 파병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 및 기사가 주요 배치의 구도였다.

-
- 2) 텍스트 수집의 경우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데이서울』과 『여원』의 목차 중 ‘베트남’, ‘월남’, ‘파병’, ‘아오자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찾고, 그 해당되는 기사를 보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원본 또는 PDF 파일로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아카이브와 잡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았다. 본 논문에 텍스트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당시의 맞춤법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였고, 한자는 대부분 한글로 바꿔 표기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표기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 다루지 못했지만, 국회회의록, 국방부 등 정부발간자료 등의 1차 자료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동아일보」 기사, 관련 영화, 소설, 음악, 수기 등도 보조적으로 참고하였다.

〈표 1〉 『선데이서울』과 『여원』의 베트남 전쟁 기사 목록

구분	연도	월 일	기사제목
선 데 이 서 울	1968	9월 29일	군 특집 파월 부인 대표 3년의 연서: 문정인
		10월 20일	워커힐에 베트남 있다
		12월 8일	나는 호지명의 심복이었다: 게릴라부대의 소령을 지낸 한국 정치적인 물음도 아니요, 또 피와 시체인 유남성 씨
	1969	1월 5일	호화로운 화보: 한국인의 아내 사이공서 서울까지 영원한 사랑을: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딸 월남 아가씨 구엔티함 양의 신혼기
		1월 12일	특집 어느 인생, 파월 장병의 편지 아저씨: 혼자서 만2천 통 홍중기
		3월 9일	어느 인생 월남 최초의 한국인 스님: 국경을 넘어 전화의 마을에 다정불심을 심는 박홍주 주지
		3월 30일	호화로운 화보, 사이공서 춤추는 늘씬한 한국인들 용감한 타이한 울려준 17세 월남 아가씨의 편지와 화제: 소녀의 기도와 전장의 기적과
			호화 화보 낯선 월남 땅서 싸우는 남진 상병
		8월 31일	특파원 정보, "울려고 내가 왔나 싸우려고 내가 왔지" 낯선 월남 땅의 청룡 소총수 남진 상병
		9월 14일	여성의 지팡이나 자매의 농팡이나, 파월 기술자 신원조화와 경찰과 두 여인과
		9월 28일	특집 조애희 월남서 시작한 제2의 인생: 공연길 비행기 추락사고 위기일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11월 23일	어느 인생 1급 정보: 파월 비둘기 현지 결혼 제1호 이길선 하사 부부 뜻밖의 인생 애가, 임 불러 몸부리치는 한월의 여보 당신
	1970	7월 19일	소킹 특보: 정글을 누비던 미군 「게릴라」를 만나보니: 월남의 「하리마요」 설산 장덕수 씨 아들
		10월 11일	특종 화제: 총들과 화폭에 담은 월남 격전: 월남 전선서 진중 작품전을 마련한 화가 병사들
	1971	2월 7일	안방 극장의 『월남전선』
		7월 4일	호화 화보: 월남 아가씨의 한국 나들이
	1972	11월 5일	조(趙) 봉사가 눈뜨고 월남 갔던 아들 만네
		2월 4일	맹호의 애인이 시집으로 억어낸 월남전
		9월 2일	한국은 비둘기부대 마스코트
	1973	2월 11일	이기고 돌아온 파월 용사들
		9월 2일	한국은 비둘기부대 마스코트: 한국 노래 100곡 부르는 월남 아가씨
		9월 23일	1천만 원 모으는 비둘기 전우들

여 원	1965	7월호	베트남 녀인들의 절규/ 이규태
		8월호	비둘기 부대에 남편을 보내고/ 정영희
	1966	5월호	베트남 통신
		6월호	베트남 통신
		7월호	베트남 통신
		8월호	베트남 통신
		9월호	베트남 통신 사진 화보: 전화(戰火) 속의 여심 - 월남의 여인들
		10월호	베트남 통신
		11월호	베트남 통신
		12월호	베트남 통신
	1967	1월호	베트남 통신
			월남의 신부
		2월호	신은 이처럼 비정합니까?(고 백광남 기자 미망인의 수기) 베트남 통신
		3월호	베트남 통신
		5월호	주월한국부대의 월남 여성들
			(여류시인이 본 월남-월남인의 생애) 전쟁은 그들에게 슬픔을 가르친다
			전쟁에서 돌아온 맹호의 여왕
			베트남 통신
		6월호	베트남 통신
		7월호	베트남 통신
		8월호	따이한을 찾은 월남 아가씨 베트남 통신
		9월호	베트남 통신
		10월호	베트남 통신
			장군의 표정: 채명신 장군의 생활 따이한 내 구원의 연인
		11월호	베트남 통신
		12월호	베트남 통신
	1968	1월호	베트남 통신 (베트콩 여포로의 수기) 별드는 철조망
		2월호	베트남 통신
		11월호	한국에 시집오려는 월남의 딸
	1969	1월호	아오자이 입은 코리아의 아내

『선데이서울』은 성담론이 자주 등장하고, 『여원』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잡지이다 보니 베트남 관련 기사도 주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텍스트 내용으로만 보면 여성을 표상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주로 여성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는 데 동원되거나 타자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었지만 전쟁의 폐허가 된 베트남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당연히 한국 군인들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베트남 포로를 잡은 모습이나 ‘용맹성’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강한 군인들의 모습만 드러난다. ‘맨주먹으로 2명의 적을 생포한 장 하사(여원 1967/11)’, ‘울려고 내가 왔나 싸우려고 내가 왔지, 낮선 월남 땅의 청룡 소총수 남진 상병(선데이서울 1969/8/31)’같이 드러내고자 하는 텍스트만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무엇이 선별되고 무엇이 감춰지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를 알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3. 한국 여성의 표상

1) ‘위안’으로서의 한국 여성

(1) 전장을 잊게 하는 평안의 메타포 ‘어머니’

현재 징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군인들에게 ‘어머니’

라는 존재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단어다. 과거 한 방송사의 〈우정의 무대〉라는 TV프로그램³⁾에서는 “그리운 어머니”를 부르며 뛰쳐나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방송해 온 국민들의 감수성을 자극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일련의 군대의 ‘모성애’ 내러티브는 애국심과 함께 공존한다. 이는 전쟁 시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이데올로기이다.

모성주의를 둘러싼 페미니즘 연구에 의해서 모성은 근대의 발명품이며 모성주의는 근대의 산물(우에노 지즈코 2014, 53)이라고 알려졌지만 전쟁 시, 혹은 지금의 한국과 같이 징병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예외’ 상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전쟁에 이어 베트남 전쟁 속에서 모성의 이상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어머니로서 전쟁미망인의 이미지는 더욱 확고해졌는데, 수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비교해 소수이지만 ‘어머니’로서의 전쟁미망인상은 더 확실하게 표출되었다(이임하 2010, 334).

멀리까지 와주신 어머니를 뵙자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인가?

“부모 된 도리로 무슨 말을 하겠니, 꼭 이기고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다”

3) 〈우정의 무대〉는 문화방송이 제작, 1989년 4월 22일부터 1997년 3월 2일까지 방영된 장수 유명 프로그램이다.

하시면서 내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셨다. 이제 먼 이역의 하늘 아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꺼내어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몸 속속들이 되새겨본다(자료: 이광일. “어머니의 성경.” 여원 1966/5, 밑줄은 인용자).

『여원』에 실린 병사의 수기를 통해 전장에서 병사들이 회고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이상화되고 관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이들에게 어머니는 베트남이라는 전장 속에서 공포를 짓게 하는 안온한 평화의 상징이자 고향의 메타포로 존재한다(전경옥 외 2005, 50~51). 미디어를 통해 이것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달되며 이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시 감상에 젖게 만든다. 어머니는 “부모 된 도리로 무슨 말을 하겠니, 꼭 이기고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다”라며 위로한다. 로레인(Lorraine Bayard de Volo)은 “어머니는 이데올로기 최전선을 따라 전쟁의 동원에 주체이기도 하고 객체이기도 하다. 모성적 이미지는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병사, 병사가 될 남자들, 죽은 전사의 어머니들은 전쟁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어머니의 조직에 스스로 가담한다”(권인숙 2001 재인용)라며 국가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조작되는 전쟁 시기의 모성을 설명했다.

베트남 파병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자발적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 한 증언⁴⁾에 따르면 당시 한국 남성들에게 베트남 전

4)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이 2004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참

장은 피하고 싶은 장소였다. 또한 탈영이 많이 발생하자 가족들을 모아 정신교육을 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성 이데올로기’와 같은 담론이 또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직접 병사들을 설득하지 않는다. 국가와 병사 사이에 어머니가 존재하고, 그 어머니를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의 신문기사에 실린 한 여성(어머니)의 글을 보면 국가와 어머니의 관계가 드러난다. 이 글을 통해 베트남에 아들을 파병 보내는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어떤 ‘정신교육’을 받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어머니’를 포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의 한국군 시설의 훌륭함을 홍보하고, 여러 미담을 생산했으며, 행사 등을 개최하여 위로하였다. 미디어의 이데올로기 주입은 베트남 파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새벽 별 아래 드리는 내 정성도 헛되지는 않으리라. 처음엔 월남이란 두 글자만 신문에 나타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니 이제 안정된 자세로 아들의 뉴스를 듣고 보게 되었다. 위대한 강재구 소령의 이야기, 맹호-청룡-비둘기들이 장글에서 움직이는 이야기, 파월 장병에 대한 정성어린 위문 행사, 놀랍고도 흐뭇한 온갖 소식들이... 시동생이 그때 무사히 돌아왔던 것처럼,

전한 사병들(308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7%가 자발적 지원자가 아니었다(박태균 2015, 153). 채명신 사령관도 훈련 과정에서 탈영을 걱정했다. 많은 날은 하루에 50명 정도가 탈영하기도 했다고 회고한다(박태균 2015, 155). 당시 탈영했던 개별 군인 사례와 관련해서는 권혁태(2014) 논문을 참고.

내 아들 철이도 자유와 평화의 월남을 건설하고 대한의 여러 용사와 함께 강한 몸과 빛나는 눈동자를 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내 앞에 올 때까지, 이 어머니의 모든 일과는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련다(자료: 여성 살롱. “월남간 아들.” 동아일보 1965/11/11).

‘어머니들’은 파월 장병들에게 김치 보내기 운동, 사랑의 고추장 보내기 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도왔다. 그 가운데 1966년 한국부인회⁵⁾에서는 ‘대우개선 없는 월남증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들은 “어머니와 아내로서 우리국군장병들의 대우를 미군들과 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월남증과는 절대 반대한다”(경향신문 1966/02/23)며 한국 군인들이 용감히 싸우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며 거리로 나서자는 주장까지도 했다(김미란 2010).

이런 모습들은 일본에서 총력전 체제 기간 동안 부엌에서 입는 작업복인 ‘갓포기(割烹着)’ 차림의 서민층 여성들이 거리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과 겹쳐진다. 신시아 인로

5) 4·19 이후 대표적인 여성운동 세력이었던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은 일체의 단체를 해산시킨다는 5·19 포고령에 의해 잠시 와해되었다가 1963년 10월 전국대회를 거쳐 한국부인회로 통합했다. 여성발전 사업, 소비자 보호운동, 불우 이웃 돕기, 모성 보호 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1965년부터 시행한 ‘훌륭한 어머니상’과 주부 학교 제도, 소비자 고발 창구 제도 등은 후발 여성단체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경향신문 1993/12/23).

(Cynthia Enloe)가 말했듯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온 어머니의 역할이 공적인 역할로서 평가되는 계기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 역할에 끌리게 되는 것”이다(Enloe 2000). 어머니는 이렇게 후방에서 돕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국민화’되었고, 더욱 ‘모성애’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위안을 받고자 하는 병사들은 미디어를 통해 민족적 기호와 어머니를 호명했고, 미디어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현했다. 여기에 한국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병사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머니로 간주되는 여성은 섹슈얼리티(Sexuality)가 통제되어 가족과 국가의 소유가 됨으로써 활용·매개·동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성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정희진 2005, 55~57). 전쟁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잘 발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고, 국가는 ‘모성애’ 담론을 일상의 동원에 있어 절대 놓치지 않았다.

(2) 한국과 가정의 내조자 ‘양처’

미디어 재현에 있어 ‘모성애’와 함께 ‘양처’에 대한 담론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다음의 『여원』 기사에서도 그것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 기사는 편집주에 따르면 ‘월남에 파견되어 있는 군의관이 부인의 편지를 공개하여 한국에 있는 국군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여원』에 보낸 것으로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가 함께 실려 있다.

(전략) 당신 편지 오늘 받아 보았오. 특히 아이들 이야기를 자세히 써 주

어서 고마웠요.

우리들의 식사는 안남미 주식에다가 계란국, 배추국, 고기찌개 혹은 닭고기(다리 하나), 파인애플쥬스 또는 도마도 쥬스 등을 먹고 있으. 하루 부식비가 60센트인데, 앞으로 11월에 가면 1불 20센트로 오르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요. 오히려 살이 너무 쯤까 봐 걱정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과 애들이요. 특히 영문이 영양을 쯤 떼고 나서 몇 달 동안이 가장 중요할 것이오. 밥이나 떡 같은 것 같은 것만 들이 먹여서, 배만 땡꽂이 배같이 만들지 말고 우유나 고기 같은 것을 꼭 먹이도록 해야 되요. 시장에 나가면 미국산 skin milk가 있는데 굉장히 쌀 거요. 그것을 사서 진하게 타면 꼭 설사하니까 연하게 타서 조금씩 자주 먹이도록 하시오. 그것이 결코, 굉장히 싼 단백질 및 비타민 쏘스가 될 거요. 포도주는 설탕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요. (...중략...) 항상 침착하고 정숙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기 바라오.

(...중략...)아빠가 안 계시는 아이들이기에 그들에게 아빠 뭇까지 그이가 계시던 때보다 더 많은 애정으로 보살피는 것이 그이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그이의 요즘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서 거의 일류 호텔에서 지내는 것처럼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만일 그이가 돌아와서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면 어떻거나... 생각하다가 드디어 저는 그이가 돌아오기 전에 놀랄 만큼 집을 잘 꾸며 놔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워실, 지하실, 화단, 자그마한 애들 놀이터 등등... 정말 그이가 여기 계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집을 만들어 놔했습니다.

가장이 아니 계시기에 울고 싶도록 애가 타는 때도 많았습니다. 여자가 시

키는 일이라 그런지 인부들이 말을 잘 들어 주지도 않고, 그나마 직장이 없다면 제가 감독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면서 여간 애로가 많지 않았읍니다. 그런대로 그이가 돌아오시면 포근히 안길 수 있는 아담한 환경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얼른 그이에게 어린이처럼 칭찬 받고 싶어집니다.

요즈음도 월남사태가 격변하고 있지만, 그이가 꼭 돌아온다는 신념 아래, 앞으로 남은 나날을, 새신랑을 맞는 것 같은 마음 설레임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즐거움으로 매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자료: 윤영진, 「비둘기 부대에 남편을 보내고」, 여원 1965/8, 밑줄은 인용자).

오고가는 편지 내용을 보면서 독자들은 전쟁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부의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위로를 얻을지도 모른다. 군인 남편의 입을 통해 베트남 전장의 상황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과 식사 메뉴를 일일이 열거하며 좋은 환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한편, 이 편지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어법이 다르다. 남편은 명령형의 ‘하오체’를 사용하고, 부인은 ‘그이가 계시던’처럼 극존칭을 쓰고 있다. 또한 남편은 부인에게 “항상 침착하고 정숙하라”는 명령과 아이들의 먹을거리까지 자세히 챙겨주는 존재다. 반면 부인은 남편만을 바라보며 무사하기만을 빌고, 그리워하는 ‘감성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해 집을 꾸며놓는 등 ‘내조’를 하는 여상상으로 표상된다. 어린이처럼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부인이고 칭찬해주는 주체는 남편이다.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우열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각인시킨다.

이렇게 재현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특히 채명신 장군의 부인인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여 만들어내는 표상이 대표적이다. 문정인의 입을 통해 베트남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과 부인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형성하게 하고, ‘양처’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다음과 같이 『선데이서울』에서는 “3년 동안의 기나긴 공백을 안내와 부덕과 지혜로 지켜온 파월부인 대표”인 문정인과의 인터뷰가 “우리 군인 모두는 애처가”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문 여사는 맑고 쾌활한 표정에 기품과 차분함을 지녀 덕 있는 주부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라는 편집자의 코멘트로 시작한다.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집, 인터뷰의 질문은 독자들에게 더욱 각인시키는 문장으로 다가온다.

▶ 하긴 그렇죠. 그러나 ‘아오자이’의 월남 미녀들 사이에 ‘해섬’한 채 장군을
방치해 두고 잠이 오실까요?

“... 믿어야죠 뭐”

(...중략...)

▶ 편지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1주일 한 두 번씩은 꼭 해주셔요.”

▶ 문 여사 쪽에서는?

“나도 그 정도죠. 그 이는 더 자주해 달라고 해요. 당신의 편지 한통이 월
남에 있는 한국군 5만 명의 사기를 좌우한다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웃음이 문 여사의 얼굴에 피어 오른다.

(...중략...)

- ▶ 혼자서 가정을 지키시기에 힘드시죠?

“아이들 교육에 좀 힘이 드는군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 ▶ 집안일 외에 사회 활동은?

“별로 없어요. 이따끔 장교 부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상이군인들 위문이나 하구... 월남에 드나드는 분들 전송이나 하는 정도죠.”

(...중략...)

- ▶ 역시 믿음 뿐이군요.

“그럼요. 사실 우리 군인들은 모두 애처가네요. 모이면 아내들 얘기만 하구, 얼마 안되는 봉급도 꼬박꼬박 모아서 가족에게 송금하잖아요. 이렇게 잘들 하시는데 내가 각서 같은 것을 쓴다면 여기 있는 가족들이 도리어 걱정을 할거예요.”

- ▶ 어서 임기가 끝나 돌아오셔야 할텐데요. 이 지나긴 애정 공백기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드리겠어요?

“그 이는 편지로 늘 얘기 한답니다. 돌아오면 떨어져 있던 기간의 애정을 보충 할 만큼 몇 해 더 잘하겠다고요.”

- ▶ 애정의 공백기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문 여사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역시 쓸쓸함을 감출 수 없는 미소였다. 월남인들이 선물했다는 한 쌍의 조그만 사기 코끼리가 있는 정원도 그래서 그런지 펑 썰렁해 보였다. 아니, 가을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문 여사의 표정에는 앞에서 싸우는 남편을 뒤에서 미

는 아내의 믿음직함이 새겨져 있었다(자료: “군특집 파월부인대표 3년의 연서 문정인.” 선데이서울 1968/9/29, 밑줄은 인용자).

문정인도 남편을 향해 존칭어를 쓰며, 끝없는 신뢰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위문편지를 독려한다거나 전장의 안세도 대신 전한다. ‘헨섬’한 남편은 ‘아오자이’ 월남 미녀들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강인한 인물이고, 이것은 부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부당함을 토로하기보다는 ‘군인 아내의 숙명’이라며 그대로 정세에 안도한다. 가정은 남편 없이 혼자 지키기 힘들고,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을 뒤에서 미는 믿음직한 존재, 보좌를 잘하는 역할로 강조한다. 이렇게 이 인터뷰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의 상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문정인의 입을 빌려 장군 채명신이라는 인물을 미화하고 있는 특징도 지닌다. 파병된 군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채명신은 가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처가’인 남편이고, 전장에서는 정리와 일 처리가 분명한 군인이다. 가족 정신과 군인 정신이 모두 뛰어난 그를 보며 군인들과 군인의 가족들은 안도감과 함께 대리만족을 한다.

문정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다. 당시에도 이대 흠커밍퀸⁶⁾으로 뽑히는 등 ‘엘리트 대표 여성’이었다. 파월 장병 가족들

6) 이화여대 흠커밍퀸(동창 여왕)은 사회에 공이 크고 모범적인 여성을 뽑아 ‘동창 여왕’으로 대관식을 열었다. 첫 번째 동창 여왕은 김활란 명예 총장이 뽑혔다. 한편,

을 위한 위로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일반 대중들은 ‘엘리트 여성’도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 안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을 대표한 채명신, ‘양처’를 대표한 문정인을 ‘본보기’가 되게 함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 방송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에게 “당신 옆에 여성 병사가 동료로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라고 묻는 인터뷰에 그 병사는 곤혹스러워하며 “우리는 고향의 아내나 연인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배웠는데, 보호받는 당사자인 아내나 연인이 전선에 나타난다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라고 답했다(우에노 지즈코 2014, 81). 결국 전장에서 남성의 정체성은 가족 또는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우월감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내면화한다. 미디어는 전장의 보조적 장치로 군인들을 그렇게 만들도록 더욱 훈육시키고, 끊임없이 ‘현모양처’의 모습을 생산하며 대중들의 무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도록 했다.

메이퀸이라는 시상식도 있었는데, 이는 졸업반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앙이 돈독하여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이 투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이것이 미인 대회와 착각하기 쉽거나 전근대적 꼭두각시놀음이 아니냐는 극단적 반대론 등이 있어 1978년부터 중단되었다. 당시에 메이퀸과 홈커밍퀸은 일간지에도 실리는 등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민숙현 1981, 372~379).

2) 성애화된 위안

(1) 위문편지: 텍스트로 성애화된 상상태

정보화 시대 이후 편지는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 버려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1960~1970년대는 주요 전달 매체였다. 편지는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이라는 먼 장소와의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매개였다. 편지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메시지가 오고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사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주로 동원을 통해 대규모로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위문편지’는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 정당성을 위한 ‘일상의 동원’ 중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국민 학교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먼 타국에 있는 자국 군인들을 위해 위문편지를 써야 했다.

미디어에서는 ‘편지’가 병사들의 중요한 ‘위로’ 수단이 됨을 강조하고, 주로 ‘여성’ 독자들에게 편지를 주문하는 기사가 다수 등장한다.

가끔 여학교에서 오는 위문편지도 아직 저는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문편지라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 주리라 마음먹고 있지만 위문편지는 제 차례까지 오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지 보낼 곳도 고향의 집 밖에 없고 보내 오는 곳도 고향의 집밖에는 없습니다. 좀 여러 곳에서 갖가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의 편지도 한 장씩 받고 싶습니다(자료: 이영승, “정인의 편지 기다려” 「베트남통신」, 여원 1966/8).

『여원』이라는 매체는 주 독자층이 여성이다. 따라서 『여원』이 여성들을 향해 편지를 주문하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여원』에서는 군인들의 수기가 담긴 ‘베트남통신’이라는 코너를 2년 가까이 지면에 배치하고 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직접 텍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자주 독자들에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이 보낸 것보다 ‘여성’이 보낸 편지가, ‘위문품’보다는 ‘여성의 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행위 속에 ‘여성의 편지’는 이들에게 위로 및 사기 충전의 상징으로 표상된다. 또한 편지는 매우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편지는 그들에게 여성을 나타내는 상상태(想像態)로 발로된다.

그리고 이런 위문을 통해 군대는 ‘남성’들만의 특수한 공간이고, 여성들은 ‘치어리더’가 되는, 이분법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한다. 남성들의 행위는 ‘대표성’을 띄지만 여성들은 주변화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는 여성 독자들은 편지를 쓰는 행위를 응당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요구 받는다. 위문편지는 한국 여성들에게 ‘국민화’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2) 위문공연: 남성의 응시로 만들어진 재현 공간

편지가 텍스트로 병사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다면, 전장에서의 직접적인 위로의 형태 중 하나는 ‘위문공연’이었다. ‘모국의 여성’은 전장에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모성애’를 가짐과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느끼게 하는 다면적인 존재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병사들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팀이 동원된다. 지금도 군부대에서 여성 아이들

〈그림 1〉 유튜브 채널 월드오즈비즈에 업로드된 '코리안 키튼스'의 위문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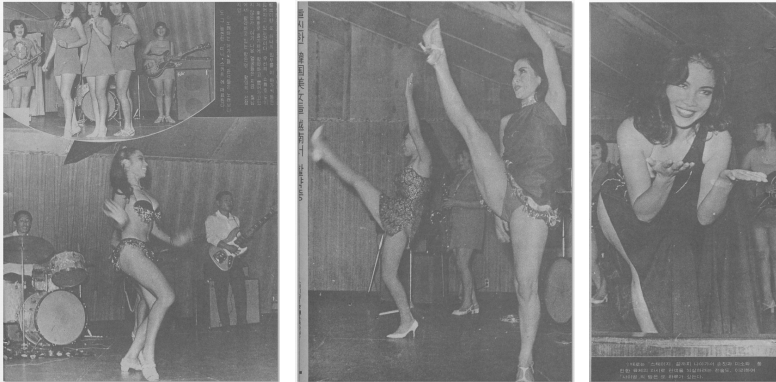


자료: 유튜브 weirdozvidz 채널, 검색명: The Korean Kittens What'd I Say
(<https://www.youtube.com/watch?v=x9A66z3oiow>)

의 공연에 환호성을 지르는 군인들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비춰진다. 윤복희가 속한 그룹인 '코리안 키튼즈(The Korean Kittens)'도 비슷했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위한 위문공연 영상을 현재도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의 공연 장면을 보면 다소 파격적인 의상과 코믹스러운 춤이 특징이다(〈그림 1〉). 위문공연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자유월남군', '미군'을 대상으로도 함께 진행했는데, 영상에 비친 미군 남성들의 웃음과 시선은 위문공연에서 여성의 몸이 '성애화'되는 동시에 '오락거리'로 표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는' 행위에 있어서는 존 버거가 말했듯이 '남성들은 행동하고 여성들은 나타난다(appear). 남성들은 여성들을 본다. 여성들은 보이는 자신

〈그림 2〉 늘씬한 한국미녀들 월남서 활약중



자료: 선데이서울(1969/3/30)

들을 주시(watch)한다’. 주체와 객체, 즉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간의 성별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응시의 권력이 생겨난다. 여성, 특히 여성의 몸이 재현되는 데 있어서는 남성의 응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성의 이미지는 항상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상적’인 관객은 항상 남성이며 여성의 이미지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버거 2012; 이수안 2012). 군부대의 위문공연은 그런 재현의 공간으로서 안성맞춤이 된다. 그렇게 여성은 몸을 통해서 전쟁에 개입하는, ‘섹슈얼리티’ 역할로 표상된다.

또한 선데이 서울에서는 연예인들의 가십과 사진 화보를 자주 실었기 때문에 베트남 위문공연 연예인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호화로운 화보’라는 이름으로 3면에 걸쳐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은 ‘여성의 몸’이다.

매우 파격적인 노출과 사진에 첨부된 캡션 설명은 위문공연을 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 캡션에는 “노래보다 미니스커트에 매료된다”, “손짓과 미소와 풍만한 육체의 과시로 관객을 뇌쇄하려는 전술” 같은 표현으로 매우 주관적인 섹슈얼리티 서술 방식이다. 그리고 “수출이란 또 하나의 임무를 이 아가씨들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쇼무대도 이제 동남아로 줄기차게 활약하고 뻗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몸은 ‘수출’된다.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작동되고 있었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들을 절대 비껴가지 않았다. 대중들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아닌 돈을 벌 수 있는 장소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박정희가 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을 끊임없이 물질주의적 욕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의 장으로 주입(윤충로 2015, 197)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출’되는 여성의 몸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까지 동원되었다.

한편, 위문단⁷⁾에는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민족적 긍지를 가

7) 해방 후 한국의 음악인들은 대거 서울시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의 전신인 해군정훈음악대와 육군교향악단, 군가제정위원회 등에 참가했고, 한국전쟁 시의 군가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재건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을 위한 선전 가요 제작에 참여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활동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에도 대거 동원됐다. 이미자, 김세레나, 정훈희, 남진, 현미 등 인기 가수들 이외에도 김대환 등 그룹사운드 멤버들 역시 ‘사지에서’의 공연을 수행했다(한석정 2016, 408).

숨깊이 간직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가장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박경화, “월남에 다녀와서”, 『베트남통신』, 『여원』, 1967년 4월호)라고 언급한 한 대학생의 소회 기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위문단의 역할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까지도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문공연의 대거 동원 대상은 엘리트 여성을 대표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베트남으로 직접 위문공연을 가기도 했지만, 학내 행사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파월 가족 위안의 밤’ 같은 행사는 파월 장병 지원 위원회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이화여대 학보의 관련 기사“파월장교가족위안잔치.” 이화여대 학보 1967/5/22)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면 한복과 군복을 입고 ‘맹호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데에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활란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기간부터 김활란과 모윤숙은 ‘전시 국민 홍보 외교 동맹’과 낙랑클럽을 조직하고 여학생 등을 동원하여 ‘파티 대행업’에 나섰는데 주로 미군(UN군) 장교들을 위안한다는 명목이었다(이임하

8) 김활란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 당시에는 활약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이화여대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나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개전 이후부터 강연과 방송에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 선전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머니나 딸, 동생으로서’ 징병·징용·학병 등 인력 동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촉구한 인물이었다. 또한 4·19 때 이대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막았으며 이듬해 5·16이 터지자 박정희의 특사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군사 반란의 정당성 홍보에 앞장섰다(정운현 2016).

2007, 182).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시중을 들고 노래와 무용 등을 하는 여학생들이 이승만식 외교에 동원되었다면 그 대상이 조금 바뀌었을 뿐 방식은 그대로였다.

파병군인들을 위한 ‘위문공연’은 여성들이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섹슈얼리티의 표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이면이었다. 또한 개발주의(성장주의) 이데올로기까지 동원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성들의 ‘위문공연’은 일상에 무감각하게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4. 베트남 여성의 표상

어느 한 일본군 장교 출신의 사람이 인터뷰에서 “전쟁터에서는 죽이는 일, 먹는 일, 성(sex)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안연선 2003, 160)라고 발언했던 대목을 생각해보면 전장은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해도 용납이 되는, 또한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남성성’인 것처럼 합리화되는 장소이다. 신시아 인로가 말한 것처럼 “군 기지라는 우주 안에서 군인 손님들은 남성성—그리고 그들이 재현하는 국가의 역량—을 기지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보도록 배운다”(문 2002, 57).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전에 군대 주변의 술집에서 여성들을 샀고 그들로부터 하룻밤 위안을 받았으며 베트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그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고 과정처럼 여겼다(김현아 2002, 75).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베트남 여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 남성이 그들을 성애화된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그 이데올로기에 체화되어 살아왔던 한국남성들이 베트남이라는 타국에서 ‘동남아 여성’을 어떻게 모순적으로 바라보았는지도 드러내고자 한다.

1) 성애화된 시선

(1) 전통적 기호인 ‘아오자이’

‘아오자이(Ao Dai)’는 지금은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베트남 전통 복장의 명칭이다. 1960~1970년대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이었지만 베트남이라는 국가와 한국의 접점이 생기면서 한국의 국민들에게 각인된 베트남의 문화적인 키워드는 ‘아오자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선데이서울』과 『여원』의 기사 제목을 보면 ‘아오자이의 아가씨’, ‘아오자이 입은 코리아의 아내’ 등 ‘베트남 여성=아오자이’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선데이서울』에 실린 <그림 3>처럼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형형색색으로 차려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이미지는 마치 ‘미인대회’를 보는 듯하며, 이 시선은 남성들을 향해 있다.

그리고 아오자이 옷을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베트남 여성의 얼굴, 손톱, 피부부터 속옷까지 온 몸 전체를 훑는 시선이 그려진다.

〈그림 3〉 월남아가씨의 한국나들이



자료: 선데이서울(1971/7/4)

월남의 가냘픈 아가씨들, 정말 이쁩니다. 그 가냘픈 몸매 하며 아오자이의 매력, 보다는 korea tiger no.1하며 눈웃음치고 달려드는 애교, 가끔 빠져 가면 그 슬한 미군들을 제쳐놓고 당장 달려와서 용사들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애교를 띄우니 곰보도 보조개로 보일 정도지요.

아오자이, 그것이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흔히 영화에서처럼 히프 아래만 타진 것이 아니라 어깨 밑 겨드랑이부터 발밑까지 옆이 트였는데다 열대지방이라 얇은 천에 내의는 가장 간단한 것 하나, 그것도 아오자이처럼 하얀 것이면 좋을텐데 대부분 핑크 아니면 빨강, 그린, 블루. 이 지경이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당신들의 용감한 머슴아들은 눈앞이 아찔하여 눈을 감아 버린

답니다(자료: 김정승. “고국의 아가씨들에게.” 「베트남통신」, 여원. 1966/5).

아무렇게나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가냘픈 곡선 속에 익어 버린 아오자
이의 굴곡은 임신이라는 죄악을 영원히 부여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브의 나
상을 연상케 하는 신앙의 경지를 이룬 것이어서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깝지만
불운한 손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설교가 풍겨 나오는 표상 같았습니다. 병
상에 누워 있는 아내의 나약한 모습이 가끔 방탕한 남편을 설복시킬 수 있
는 그런 힘이라고나 할까요. (...중략...) 다시 말하면 월남 여성들은 매일 목
욕탕에서 나오는 양귀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 땀을 흥건히 흘려야 하는 월남 여인들은 사실상 그 옛날 목욕탕보
다는 비할 바 없이 성능이 월등한 천래의 증기탕을 하는 셈이 되는 월남 여
인들에게서는 양귀비가 지녔던 매력은 자동적으로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아
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뽀얗게 서리는 증기 속에 넘실 거리는
나상의 여신이 풍기는 요염한 아름다움과 함께 그 여성적인 면에서 울어 나
오는 미. 이진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 신중히 나열하는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앞으로 귀국해서 한국 여성에게 장가 가야 할 숙명인 저에게는 발전성 있는
발언일 것 같기에 열거하는 정도로 그칠까 합니다(자료: 윤배인. “꽂가이 예
찬.” 「베트남통신」, 여원. 1967/6).

한국군인들이 그리는 베트남 여성의 묘사에서는 아오자이가 빠짐없
이 등장한다. ‘눈앞이 아찔하다’, ‘이브의 나상을 연상케 하는’ 식의 표현
처럼 아오자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그들만의 권력화된 시선으로 응시

한다. 그럼으로써 아오자이는 베트남 전통 복장이 아닌 남성들의 소유물로서 식민화된다. 베트남 여성의 신체를 전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술한 미군들을 제쳐놓고 한국군에게 달려오는’ 베트남 여성은 한국군의 우월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존재다. 전장에서 미군보다 계급적으로 낮다고 느꼈던 한국군의 피해의식을 베트남 여성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욕구로 보인다. 즉, 한국과 미국의 (군인) 계급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젠더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역전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복장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의상이기도 하지만 타국 남성들의 여성을 향한 섹슈얼리티의 기호이기도 하다. 베트남 파병 시 한국 군인들의 응시 권력이 베트남 여성의 ‘아오자이’를 ‘정복’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2) 적과 섹슈얼리티의 대상 ‘베트콩’

미디어는 ‘베트콩의 악’을 설명하기 위해 ‘베트콩 여성’을 동원한다.

저의 나이는 23세, 더우기 약한 여자의 몸이었지만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트콩들로부터의 끊임없는 협박과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중략...) 특히 한국군 해병대는 저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부와 국민에게 죄를 지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댓가를 받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댓가를 치르고 나서 석방이 된다면 저는 하루 속히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를 영영 만날 길이 없다면 제가 잡히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묘비를 세워 드리고 나서 아무 일이나 하며 어린 조카를 돌보고 광명 속

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베트콩들의 선전에 속아(실상 저는 그 선전에 속았던 것도 아니지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몇몇하지 못한 이야기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가를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여원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깊은 동정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면 조그만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레 디 조이. 「베트콩 여포로의 수기」. 여원. 1968/1, 밑줄은 인용자).

‘약한 여자의 몸’이었음에도 베트콩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베트남 여성이 그려져 있다. 즉, 베트콩의 ‘악함’과 공산주의의 ‘불행함’이 여성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베트콩으로 싸울 때에는 한국군 해병대가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전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한국군의 기술력과 용맹성의 과시가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성도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표상화된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남편만을 기다리는 ‘양처’로, 효도하며 어린 조카들을 돌보는 ‘착한 여인’이기도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툼 여인은 청룡부대 주둔지인 추라이의 남쪽 3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손티군 디엔니엔 마을에서 지방부녀조직 책임자겸 세금 징수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이 베트콩에게 끌려간 이후로 6년 동안이나 어두운 생활을 참아오다가 친절한 청룡부대의 놀라운 소문과 또 적극적인 심리전의 활동에 이끌리어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밤을 이용하여 탈출해 성공하

기는 하였으나 사랑하는 딸 웬디 횡 양을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톰 여인은 청룡부대 심문반에 귀순해 오자 바로 딸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호소를 들은 청룡부대장 이봉출 장군은 즉각 이 눈물 어린 간청을 수락했다. 포로심문반장 신상집 대위를 지휘관으로 정하고 곧 특수구조대를 편성하여 비밀리에 이 마을을 급습하였다. 열세살인 딸 횡양은 한밤중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려고 자기가 기르던 돼지 2마리를 인근 산족들에게 팔아 8백피아스타의 여비를 장만하여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이때 들이닥친 구조대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무사히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자료: 「베트콩 어머니와 소녀」. 여원. 1967/1,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는 여성 베트콩의 존재를 ‘어머니’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딸을 찾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딸, 이 모녀의 모습을 애뜻하게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군은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포로의 호소를 흔쾌히 수락하는 너그러운 존재다. ‘베트콩은 악’이지만 ‘여자 베트콩’은 그 악에 희생되는 존재이면서 그 악을 더욱 부각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은 ‘보호자’, ‘구원자’의 역할로 상징화시킨다. 결국 베트남 전쟁의 구도를 ‘한국 남성’과 ‘베트콩 남성’의 대결로 구도화시키며 여성을 타자화한다.

이에 더하여 베트콩 여성은 다분히 ‘성애화’된 존재로 표상되기도 한다. ‘생포된 처녀 베트콩’이라는 제목의 한 베트남 통신 기사를 보자.

“오늘 허길주 하사 분대는 베트콩 똥까이 하나를 차고 와야 해”

“염려 마십시오. 입으로 꼭 깨물어 뜯어도 비린내도 나지 않는 싱싱한 처
녀를 끌고 오겠습니다”

(…중략…)

“소대장님 살려봅시다. 위생병을 데리고 올까요?” 살리자는 놈과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놈의 두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살릴 수 없을 때에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더 인간적인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 소대장님 미인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요, 아까운걸요, 유방도 아주 싱싱합니다” “알았어, 육체에는 손을 대지마”

“예. 예. 아직 가슴이 뜨겁군요. 요걸 그냥” 시체를 수색하고 있는 놈이 혼자 지껄이는 말이다. 동굴의 냄새는 점점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기분 좋지 않은 자극으로 귓가를 울린다.

(…중략…)

“고년이 반항만 안했더라도…” 돌아오면서 베트남 처녀를 죽인 것이 못내 아까웠던지 강 병장이 혼자서 중얼거린다(자료: 박종연. “생포된 처녀 베트남.” 「베트남통신」. 여원. 1967/7, 밑줄은 인용자).

이 기사에서는 전장 수색 과정에서의 경험을 대화식으로 길게 풀어나가고 있다.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이 베트남을, 특히 여성 베트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 여성을 ‘비린내도 나지 않는 싱싱한’이라며 마치 동물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베트남 여성의 얼굴과 몸을 훑는 남성들의 시선을

드러난다. 게다가 성폭력의 욕망까지 서슴없이 내비친다. 베트남 여성은 ‘성(性)적인 동물’ 이하로 표상되어, 남성 군인들의 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설 『하얀전쟁』에서도 한국 군인들이 여성 베트남 포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이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어떤 재현이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은 파병된 한국군인들의 베트남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의 텍스트는 포로 여성을 ‘미스 베트남’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몸이 성적 재미의 도구로 전략했음을 뜻한다. 이어 “그들이 그녀로부터 원하는 것은 끈적하고 툭툭 거리는 섹스가 아니라 따뜻함과 위안과 평화였다”(안정효 2009, 273~274)고 기술하는데, 성적 폭력을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군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행한 성범죄를 생각했을 때 매우 모순된 재현이다.⁹⁾

이렇게 베트남 여성을 향한 성적 폭행은 한국 병사들에게 성적·감정적·사회적 서비스 노동의 형태로 생각되었고, 베트남 여성들은 그들에게 ‘위안부’로서 기능했다. 게다가 적을 심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적의 재산’인 여성에게 성적 폭행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으며 이

9) 최근에는 한국군의 전쟁 범죄 행위가 더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미 1972년에 <AP통신>에서는 맹호사단에 의한 양민 학살 문제를 보도했으며, 196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의 범죄행위 재판 기록 총 1,384건 중 강간 사건은 21건으로 밝혀져 있다(최용호 2007, 47). 또한 베트남 여성을 생포하면 집단 강간하고 이것을 ‘먹는 다’라는 표현을 썼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프레시안 2015/04/07).

것은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되었다(이진경 2015, 116~117).

한국군의 이런 성폭력 행위에 대해 김현아는 한국 군인들의 의식 속에 한국적 가부장제가 뿌리깊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식민기와 해방 공간, 한국 전쟁에서도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식민지였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혹은 문화를 통해 수탈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여성의 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향했다는 것이다(김현아 2002, 58). 1960~1970년대 잡지를 통해 보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표상은 실제 이루어진 폭력의 극히 일부이지만 이것을 통해 한국 남성들 깊숙이 뿌리내려진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살펴보게 하고, 무엇이 진정 드러나야 하는지 알게 한다.

2) 판타지 만들기

(1) 한국군의 ‘치어리더’로서의 베트남 여성

베트남 여성은 한국군의 ‘치어리더’로서도 표상되는데, 이는 미디어에서 사진을 통해 쉽게 발견된다. 한국군을 환영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소녀들의 모습, 기념식에서 부대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기 위해 동원되는 아오자이를 입은 고등학교 여학생들, 한국 군인들의 등목을 해주는 베트남 여성 등 일상에까지 등장한다. 사진의 프레임 안에서 베트남 ‘여성’, ‘소녀’가 함께 등장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위치 지어지면서 한국군의 ‘남성성’은 도드라진다.

〈그림 4〉 광나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첫 돌을 맞는 청룡부대들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리본을 달아주는 모습



자료: 여원(1966/12)

사진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용맹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가 텍스트를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

여러분 파이한 용사들은 저 잔인무도한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이 소녀의 어린 꿈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어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까 하고 생각한 끝에 이 글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다른 소녀들도 제 마음과 꼭 같아요. 이 땅에서 저 잔인무도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남녘과 북녘의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게 될 날을 생각하면 곁잡을 수 없는 눈물이 솟아 납니다. 하루 속히 잃어버린 이 소녀의 꿈을 찾아주

세요. - 응엔·응옥·레주 올림(자료: “소녀의 기도와 전장의 기적과.” 선데이
서울 1969/3/30)

이 기사의 편집자는 맹호사단장 장군이 베트남 소녀로부터 ‘애뜻한’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강조한다. 남성도 아니고 소년도 아닌, ‘소녀’를 등장시킴으로써 적인 ‘공산주의’와 대치가 더욱 부각된다. 그리고 이 소녀가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대상은 한국군이다. 한국군은 이런 소녀의 부탁을 통해 더욱 용맹스러워지고, 베트남 전쟁에서의 대표성과 사명감을 더하게 되는 구도다.

이 밖에 한국군을 ‘찬양’하는 기사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여원』 1967년 5월호는 4면의 장을 할애하여 주월 한국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3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을 자세하게 싣고 있는데, 읽다 보면 본래의 기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원래는 이들을 통해 월남은 어떤 나라인지를 한국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함인데, 베트남에 대한 설명보다는 한국 및 한국군의 위대함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편집부가 부제목을 ‘가깝게 느끼는 한국’, ‘믿음직한 용사들’, ‘친절한 한국인’으로 선택한 것만 보더라도 취지는 전도되어, 본질적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전략) 부이티부환 19세. 다낭의 사오마이 여자고등학교 졸업. 청룡부대 본부 타자수로 2개월 근무. 보수는 월 70불. 아직 미혼. 광가이 성장인 삼촌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

…… 한국군은 우리에게 매우 신사적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지나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대장님은 곧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군기가 강한지요. 그들은 집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병영을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동료끼리는 형제처럼 다정하고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청룡장병들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점점 생활의 불편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가끔 부대에서 열리는 파티에도 초대되곤 합니다. 한국군들은 우리에게도 동정을 느끼고 또한 그것은 부대 주변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룡부대가 빈손지역과 내 조국에 안전을 가져다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청룡부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잔티안홍 17세. 미혼. 취미는 독서. 특기는 재봉. 소망은 현모양처.

…… 맹호부대용사들은 우리의 그런 미움이나 무관심을 씻어준 유일한 용사들입니다. 65년 10월에 타이한 군인들이 귀논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 땅에 또 짙은 총소리를 남기겠구나 하는 생각 밖에는 없었습니다. 20년이나 끌어온 전쟁을 어떤 군대가 말더라도 끝낼 수는 없을 터이니 까요. 그러나 맹호부대가 상륙한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 월남 사람들은 특히 맹호부대가 평정한 지역에 사는 국민은 지금까지의 외국 군인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 맹호부대 용사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그 바른 예의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약한 여자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히 도와주려 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

에게는 자기의 부모를 대하듯 각듯이 인사를 합니다(자료: “주월 한국 부대의 월남 여성들.” 여원 1967/5, 밑줄은 인용자).

이 기사는 베트남 여성들의 각각 사진과 나이, 취미 및 특기 등을 맨 앞에 배치한다. 마치 결혼정보회사의 프로필 같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을 ‘찬양’하고 한국 남성들에게 ‘구혼’하는 베트남 여성을 보여준다. 이들 모두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풍습 및 역사를 공유하는 같은 동양이라는 점을 들면서 동질감을 내비침으로써 한국군과의 우정을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월남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준 존재이기 때문에 파병에 감사해 하고 있다. 이렇게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를 빌어 한국의 파병 및 군사주의를 정당화한다.

또한 베트남을 찾은 ‘무수한 외국 병사들의 거치른 발자국’ 중에 ‘맹호부대용사들은 그런 미움이나 무관심을 씻어준 유일한 용사들’로 표현된다. 예의, 용맹성, 친절함 등의 단어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한국을 최고의 국가로 위치지음으로써 ‘이류 제국주의적’ 만족감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로맨스와 결혼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포섭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과의 로맨스, 결혼 이야기는 미디어의 입장에서 좋은 소재거리였다. 당시는 국제결혼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화제였을 것이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쟁 상황이어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었

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독자들이 보기에 로맨스가 부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부부를 다룬 한 기사에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베트콩에게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이다”(선데이서울 1969/11/23)라며, 이 부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로 ‘베트콩’을 묘사한다. 절박한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콩’을 등장시키고 있는 셈이다.¹⁰⁾

더 나아가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을 부각시키는 기사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희망의 땅’으로 부상된다. 『여원』에 실린 ‘한국에 시집오려는 월남의 딸’이라는 다음의 특집 기사를 먼저 살펴보면 6면이나 지면을 할애하여 한 베트남 가족을 인터뷰하고 있다. 호이안 경찰국장과 그의 딸, 아들에 대한 인터뷰인데,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들 가족은 ‘청룡에 안겨 구사일생’한 가족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기사에서는 베트남 여성, 투엩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묘사하며, 바나

10) 한편, 이러한 구도는 뮤직비디오 〈아시나요〉(2000)의 내용과도 비슷하다. 3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베트콩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다. 한국군 신병(조성모)과 베트남 소녀(신민아)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소녀는 한국군들이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참여한다. 조국이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의 근거지를 이민족의 군대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쟁터에 따라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베트콩들에게 둘러싸여 이 연인은 함께 죽는다. 이런 로맨스의 극대화된 설정 속에는 여전히 베트콩이라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반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한국군인인 이민족을 가까이 돕는 베트남 여성의 순결을 부각시키고 동원하면서 전쟁의 본질이 소거된다(김현아 2002, 256).

〈그림 5〉 호이안 경찰국장장과 그의 딸 투엣양



자료: 여원(1968/11)

라는 부족과 투엣을 차별화한다. 즉, ‘미개’한 사람들과 ‘교양’ 있는 여성을 구분하며 이 베트남 여성을 한국군의 혜택을 받은 ‘문명화’된 여성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다. 〈그림 5〉는 경찰국장인 아버지와 그 딸인 투엣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딸은 아오자이를 입은 단아한 모습이다. 이 부녀의 위치 속에 성별화된 구도가 느껴지는데, 다음 이어지는 기사는 이를 더욱 잘 부각하고 있다.

투엣 양은 그때부터 한국의 남성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됐다. 긴장하고 여유만만한 청장년기의 외국 남성은 투엣 양이 꿈에 그리던 남성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다. 드디어 투엣 양은 동양의 등불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을 이 상스럽게 동경하며 마지않게 피고만 것이다.

…… 한국 청룡부대의 태권반원들이 그 밤에 보여준 용기는 그렇잖아도 호

감만을 가지고 한국군을 대한 투엣 양에게는 큰 감명을 주었다. 투엣 양의 가족은 오직 청룡부대 태권반원의 힘과 투지에 의해 베트남의 기슭에서 지켜진 것이었다. 청룡부대의 태권반원은 자기 병력의 여러 곱인 적을 정연한 질서 속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사살 격퇴시킨 것이었다. 바로 청룡 태권반원은 투엣 양 가족의 생명을 지킨 은인이라서 은혜를 배운 쪽과 받은 쪽은 서로 가까워지기만 했다. “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가?”

흔히 듣는 질문에 투엣 양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다. “너무 먼 곳 사람을 택하려 한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좋은 나라의 사람을 아시아에서는 찾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한국의 청년들이 감추고 있는 용기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뢰를 보거나 했으며 알거나 하는가라고 되묻고 말 거예요”

(…중략…) “한국은 제 꿈의 나라예요. 저는 평생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맞아 알뜰한 주부로 지내는 것이 꿈예요”

“그래도 성장한 땅이 아니고 국적이 다르고 습관의 차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사랑하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극복되지 않을까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김치와 고추장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한 일도 있어요. 맛도 보았고요. 월남 음식과의 차이라면 한국 음식이 맵다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음식 만드는 솜씨는 조금 있는 편이니까 노력하면 되겠어요? 한국의 여러 일에 빨리 익숙해지고 싶어요”

한국인과 월남인은 같은 동양인이니까 인종 문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피부색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예의 풍습도 중국, 인도 등과도 흡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투엿 양은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모른다. 투엿 양이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는 입수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만다는 방법까지도 알 도리가 없는 한복을 어떻게 마련해 입을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투엿 양은 아직 입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한복에 싸여 담뱃안길 어느 한국인의 가슴을 그리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영원히 한국인이 되려고(자료: 고병은, 「한국에 시집오려는 월남의 딸」, 여원 1968/11, 밑줄은 인용자).

투엿의 가족은 “청룡부대 태권반원의 힘과 투지에 의해 베트남의 기슭으로부터 지켜졌다”. 이들 가족이 왜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앞서 이유를 설명하며, 이들은 한국 군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청룡부대의 태권반원들의 ‘용맹성’을 “자기 병력의 여러 곱인 적을 정연한 질서 속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사살 격퇴시켰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동원해 치켜세운다.

베트남 여성의 목소리(텍스트)를 빌려 ‘동양의 등불’, ‘꿈의 나라’ 등으로 한국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거꾸로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잘 드러난다. 또한 민족적 기호로 태권도, 김치, 한복 등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점 또한 눈에 띈다. 즉, “집안 남성들이 태권도를 다 배우기 시작했다”, “한복을 입고 싶다”는 등을 언급함으로써 읽는 독자(한국인)에게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여성의 ‘아오자이’가 성애화된 기호로 작용한 반면, 여기서는 한국의 민족적 기호인 ‘한복’이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일종의 ‘의례(ritual)’, ‘국민

화’ 장치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 여성으로 하여금 반려자로 “더 좋은 나라의 사람을 아시아에서는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부각시킨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요소다.

또한 이 베트남 여성으로 하여금 평생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맞아 알뜰한 주부가 되겠다는 ‘현모양처’의 꿈을 피력하게 하는데, 이는 한국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겹쳐지는 대목이다. 마지막 편집주의 말, “한국인과 결혼하여 ‘영원한 한국인’이 되게 하려고”는 한국 국민으로의 ‘포섭’ 과정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월적인 위치 짓기가 가능해진다.

다음 『선데이서울』의 ‘한국인의 아내’라는 제목의 베트남 여성의 신혼기와 『여원』의 ‘아오자이 입은 코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의 사진은 그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먼저 『선데이서울』의 글을 살펴보자.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나라 한국 남성의 멋진 부인이 되어 우선 내 조국, 내 나라 사람들에게 한 동포, 한 이웃으로서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부모가 있으면서도 조국을 모르고 지내왔던 저의 과거는 이제 주위의 따뜻한 성원과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월남에 와 있는 비둘기 부대에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67년 9월 생후 처음으로 조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한국의 동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또 저에게 무한한 동경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

의 새로운 보람과 용기를 얻었고 조국의 따뜻한 정을 한껏 누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조국의 동포들은 누구나 친절했고 용감했으며 부지런히 보였습니다.

…… 저는 곧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여러분은 또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딸’임을 자랑으로 여겼고 언젠가 한국에와 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월남에 들어가면 용감한 주월 한국군 장교와 결혼하여 나의 조국 서울에 와서 살겠다고. (…중략…)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물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내조면에서 남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도우며 여러분과 함께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새롭게 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국의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공에서 구엔티항 올림(자료: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딸 월남 아가씨 구엔티항 양의 신희기.” 선데이서울 1969/1/5, 밑줄은 인용자)

이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조국’을 한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언어, 역사, 지리, 생활습관, 음식 등 모든 것이 달라 배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국’은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다. 극적으로 20년 만에 찾은 한국 남성인 아버지, 게다가 비행기 안에서 만나 운명 같은 사랑을 하게 된 남편도 모두 한국 남성이다. 여기서 어머니인 베트남 여성과 원래 살던 땅, 베트남의 언급은 전혀 없다. 한국은 남성화, 베트남은 여성화되면서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것

〈그림 6〉 월남의 신부



자료: 여원(1967/2)

이다.

또한 이 여성이 새로운 보람과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조국’인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다. ‘조국의 동포’들은 모두 친절하고 용감하며 부지런하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는 ‘희망’은 한국으로부터 발현된다. 한국 ‘동포’들의 격려는 ‘조국’을 더욱 애정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림으로써 이 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현모양처’로서 살아가는 것에 순응하고, 그것이 결국 ‘행복’의 근원임을 표상화한다.

〈그림 6〉은 전형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한국 국민화’를 나타내는 이

미지이다.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식은 국민화의 당연한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한복’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는다는 행위는 국민으로의 귀속, 국민화의 장치를 대표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복을 입고 ‘다소곳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한국의 여성’이 되려면 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사진은 자연스러움을 연출하지만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

‘결혼식’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닌 한국과 베트남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더 나아가 이 결합은 베트남이 한국에 귀속되는 것이다. 미디어가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결혼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상이었기 때문이다.¹¹⁾

5. 결론 및 제언

포털 사이트에 ‘베트남 여성’, ‘아오자이’ 등을 검색하면 매우 선정적

11) 한편, 미디어에 드러난 결혼은 몇 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결혼은커녕 한국군 남성이 자식을 낳고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군 파병 기간 동안의 ‘라이파이한’들이 생겨났고, 최소 5,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지조와 절개’를 요구하지만 정작 한국 군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안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 이미지와 한국 남성들의 베트남 여성 경험담이 쏟아진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 중 베트남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¹²⁾ 이들이 겪는 성차별·폭력 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축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성애화된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남성들을 동원한다고 하니(김현미 2006) 이는 미디어에 나타난 베트남 여성의 표상이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한국/베트남, 여성/남성, 한국 여성/베트남 여성 등 그 위치, 장소, 젠더, 계급, 경험 등에 따라 상이했지만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 모두 전장의 한국 군인을 위로·위안하는 여성으로서 동원되었으며, 미디어는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의도적으로 대립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한국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전쟁 하에 말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미디어 재현의 분석을 통해 그 이면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당시의 재현 양상을 밝히는 것 또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서벌턴’을 위한 ‘말 걸기’의 시도이며, 지금도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어 해체하고 해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내는 베트남이 36.1%로 가장 많았고 중국(26.1%), 태국(6.8%)이 뒤를 이었다. 남편은 중국(25.5%)과 미국(2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9.8%)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03/21).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이 장을 통해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양적인 분석이 질적인 분석과 동반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표상 연구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양적 방법론을 생략하였다. 관련 잡지의 자료 DB 구축이 미비하여 개량화하기 힘들고, 선택한 매체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질적 방법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미디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미디어와 수용자(독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는 일방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독자로부터의 ‘환류(還流)’가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성립하고 확대되어갈 수 있다.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환류’의 존재는 이데올로기 장치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기무라 료코 2013, 329~334). 『선데이서울』과 『여원』의 경우에도 독자란 등이 존재했고, 그것을 통해 독자의 욕구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미디어는 사회의 반영물이자 거울이라고 하지만 이때에는 오히려 국가가 미디어에 개입하면서 독자의 반응이 굴절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잡지의 발행 부수와 당시 문화의 일상사를 통해 잡지에 화답하는 독자들의 분위기를 읽어내려고 했다.

셋째 수용자 분석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대안으로 구술사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여성만 볼 수 있을 뿐, 말할 수 없었던 여성의 목소리까지 드러내지 못한다. 만약 드러낼 수 있다면 당시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별이는 저항과 전복 및 일탈의 가능성까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이기형·임도경 2007). 그러나 관련 당사자

섭외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과 필자의 한계로 미쳐 이 부분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 보다 다면적인 시각을 보기 위해서, 또한 본 논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이제부터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안의 식민지’를 청산하고 인식을 선회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먼저 본 논문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전쟁과 여성문제, 즉 남성성과 가부장제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문화적 전략인 재현의 문제와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철저한 명령 체계와 성차별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주의는 단순히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우리 안에 내재된 가치체계와 일상적 실천 속에 자리 잡은 이념이다. 그래서 늘 민족주의나 가부장제 또는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엮인 형태로 나타나고, 한 사회 또는 국제관계에서 구체적이면서 역사적인 상황성을 띤다(권인숙 2000). 지속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고, 여성 혐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를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문명금, 김옥주 두 여성은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전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전에 모은 돈을 전부 베트남 전쟁 진실 위원회에 기증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래로부터의 여성 연대가 요원해 보이는 과거의 기억 문제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참고문헌

- 강현. 2016. 『강현의 한국대중문화사 2』. 이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권인숙. 2000.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평화』 9. 133-161.
- . 2001. “군사주의와 여성: 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권재단 편.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1』. 150-167.
- 권혁태. 2014. “베트남 파병을 ‘거부’한 두 한국군 병사 김이석과 김동희.” 『황해 문화』 84. 238-257.
- 기무라 료코. 2013. 『주부의 탄생』. 이은주 역. 소명출판.
- 김미란. 2010. “베트남 참전 담론과 미디어.” 『역사와 문화』 19. 105-137.
- 김우성. 2006.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아. 2002.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베트남과 친구되기』. 책갈피.
- 도미야마 이치로. 2002. 『전장의 기억』. 임성모 역. 이산.
- 문, 캐서린 H. S. 2002.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역. 삼인.
- 민숙현. 1981.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 야사』. 지인사.
-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한겨레출판사.
- 버거, 존. 2012.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역. 열화당.
- 송유재. 1985.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국여성상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스즈키, 테사 모리스. 2006. 『우리 안의 과거』. 김경원 역. 휴머니스트.

- 안연선. 2003.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 안정효. 2009. 『하얀전쟁』. 세경.
- 연윤희. 2013.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대중 독서물의 재편.” 『대중서사연구』 30. 259-291.
- 우에노 지즈코. 2014.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이선이 역. 현실문화.
- 윤충로. 2015. 『베트남전쟁의 한국사회사』. 푸른역사.
- 이기형·임도경. 2007. “문화연구를 위한 제언: 현장연구와 민속지학적 상상력을 재점화하기.” 『언론과 사회』 15(4). 156-201.
- 이성욱. 2004. 『쇼쇼쇼: 김추자, 선데이서울 계다가 긴급조치』. 생각의나무.
- 이수안. 2012. 『이미지 문화사회학』. 북코리아.
- 이임하. 2007. “한국전쟁과 여성동원.”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도서출판선인.
- _____.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 이진경 외. 2007.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 이진경. 2015.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역. 소명출판.
- 전경옥 외. 2005. 『한국여성문화사 2』.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정운현. 2016.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최용호. 2007.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석정. 2016. 『만주모던』. 문학과지성사.

Cynthia Enloe. 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기타

국방부 <http://www.mnd.go.kr>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http://www.kaova.or.kr>

대한어머니회 www.koreamother.or.kr

『동아일보』 1965/11/11 <http://www.donga.com>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이트 www.vietnamwar.co.kr

월남참전전우회 <http://www.vwv.or.kr>

유튜브 www.youtube.com

『이화여대 학보』 1967/5/22 <http://inews.ewha.ac.kr>

통계청 2018/03/21 <http://kostat.go.kr>

『프레스리안』 2015/04/07 <http://www.pressian.com>

한국부인회 www.womankorea.or.kr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mdb.or.kr>

KTV 국민방송 <http://www.ktv.go.kr>

Abstract

The Vietnam War and Gender Ideology of Media Representation

focused on *Sunday Seoul* and *YeoWon* between 1964 and 1973

Lee, Jin Sun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reemergence of media in the Vietnam War, which is an ideological device that has made sustainable the Vietnam invasion. Particularly, I will look at magazines such as "*Sunday Seoul*" and "*YeoWon*", which are popular magazines that the public can easily see in daily life.

Through the two magazines,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reproduces the gender ideology of the dichotomous composition of femininity/masculinity. In the 1960s and 1970s, Korean society mobilized Korean women and Vietnamese women to operate ideologies such as patriarchy, militarism, developmentalism, and anti-communism, among which women were located. The media constantly created discourses such as 'maternal love' and 'good motherhood' to justify the Vietnam dispatch. And imply letters and concert performances for soldiers as important signs of comfort and morale for soldiers.

Vietnamese women are seen to be mixed in both 'gender' and 'racial' perspectives, and on the other hand, images of pure South Vietnamese women and Viet Cong women are ambivalently mixed. In order to reveal the 'evil of the Viet Cong' in the composition of 'Evil=Viet Cong,

Justice=Korean troops', a Vietnamese woman is mobilized, or in other respects, it is represented as a 'cheerleader' of the Korean army. Romance and marriage with Korean soldiers and Vietnamese women often appeared in the media, which was a great way to strengthen the image of Korean soldiers as 'saviors' and 'guardians' of Vietnamese women. Korean soldiers show the desire of class ascension distinguished from the Vietnamese, and the desire of orientalism in Asia to dominate the women, making Vietnam and Vietnam women a colony in Korea.

■ **Keyword:** Vietnam War, Gender Ideology, Media Representation, *Sunday Seoul, YeoWon*

투고 : 2018/3/26 심사 : 2018/4/12 확정 : 2018/5/9